민족문화연구 제97호 편집자의 말

『민족문화연구』 제97호에는 특집 기획 논문 3편을 포함하여 총 17편의 논문과 해제 1편이 수록되었다. 학문 영역별로는 역사학 6편, 철학 2편, 문학 8편, 문헌학 1편 등으로 구성되었고, 시대별로는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근대 연구 논문이 9편, 일제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근현대 연구 논문이 8편으로 구성되었으며, 해외한국학자료를 소개하는 해제 1편이 게재되었다.

『민족문화연구』 이번 호에는 저번 호에 이어 "『金石集帖』의 종합적 연구 2"를 기획 특집으로 싣는다. 이에 대한 소개는 특집의 말을 참고하기 바라며, 여기서는 일반 논문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노용필의 「新羅 金志誠의 道教思想 受容과 그 特徵」은 삼국통일기를 전후로 당나라에서 귀국한 후 집사부 시랑직을 지낸 김지성의 도교사상을 검토한 연구다. 「감산사 아미타불조성기」와 「감산사 미륵보살조상기」를 중심으로 김지성의 도교사상을 소개한 것도 자료 소개 면에서 일정한 공헌을 하고 있지만, 특히 태종무열왕의 아들 김인문과 육두품 출신 김지성의 도교사상을 비교하면서 김인문이 『장자』「천하」편을 중시한 것과 김지성이 『장자』「소요유」편을 중시한 차이점을 출신 성분에 따라 분석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접근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용현의 「통일신라 기간도로 5通의 방향과 범주」는 통일신라의 기간도로인 5통에 관한 논문으로서, 이 주제에 대한 통설인 井上秀雄의 견해가 가정하는 전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통일 후 영토 확장에 따라 국가 방위관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안을 제시한 연구다. 이 글은 통일신라의 5통에 보이는 방위관을 꼼꼼한 자료 분석과 비평을 거쳐 합리적으로 규명하는 과정에서 기존 통설의 문제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도전적 연구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박현순의 「조선시대 식년문과의 성격 변화」는 조선시대의 식년문과제도가 명경과로 성격이 변화한 역사적 이유와 양상을 규명한 연구다. 특히 그러한

변화의 경위를 『경국대전』에 수록된 채점과 선발방법을 통해 식년문과 회시의 실제 운영 방식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설명하였는데, 합격자의 증감이 선발 방식과 문과시험의 성격 변화에 미친 영향을 밝힌 점이 흥미롭다.

윤선영의 「조선시대 과거 낙폭지(落幅紙)의 재활용 문화」는 조선시대 과거에서 쓰던 시권(試券)이 시험이 끝난 뒤에 재활용되는 양상을 고찰한 연구다. 특히 종이의 공급에 비해 종이를 써야 하는 수요가 높은 상황이 낙폭지의 재활용을 활발하게 만든 이유와 실제 재활용의 다양한 양상을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경제적 요인과 환경문제로 인해 물품의 재활용이 활성화된 현대에도 시의성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심이 적었던 새로운 소재를 본격적으로 연구 주제로 발굴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이창일의 「제주 유학자 변경붕(邊景鵬, 1756-1823)의 성리학적 인식 탐구」는 조선 후기 변경붕의 성리학에 대한 연구로서, 변경붕의 문집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주도에 유입된 유학이 기호학파의 계승이라는 점을 밝혔다. 또한 종교적 의례의 영험이나 꿈의 조짐과 예지와 같은 사안 등에 대한 내면적 성찰을 성리학의 주요 범주인 귀신(鬼神)과 명(命)이라는 주제와 연계시켜 사색하였는데,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성리학의 합리적 이해를 추구하면서도 재주의 토속 문화에 대한 타자적 인식이 아니라 공감적 자세를 지녔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이 논문은 그동안 학계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제주도 유학이 지닌 특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연구로서도 의미가 있다.

백민정의 「정약용의 公私 관념과 정치 공공성의 문제」는 정약용의 공사관(公私觀)과 정치적 공공성을 분석한 연구로서, 인간 본성을 욕구에 기반한 기호 작용으로 해석한 정약용의 논의가 다수 인민이 지향하는 욕구를 적절히 실현하는 정치적 공공성을 지향했음을 밝혔다. 또한 이런 분석에 기반하여 정약용이 제시한 다양한 정치제도적 구상과 국가운영안의 의미, 제도적 공공성을 실현하는 정치적 주체로서 군주와 지식인의 역할, 그리고 정치적 공정성을 판별하는 도덕적 판단의 주체로서 민(民)의 위상을 재검토하였다. 정치적 공공성의 문제를 심성론의 철학적 문제와 연계하여 논의한 이 연구는, 조선시대 민본주의는 물론 현대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도 공공성 이해의

측면에서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강혜정의 「1910년대 극장에서 공연된 다동기생조합의 정재 창사 고찰—『이계향 홀기』의 〈연백복지무〉와 〈헌천화무〉를 중심으로—」는 1910년대 다동기생조합이 공연한 〈연백복지무〉와 〈헌천화무〉의 창사를 소개하고 정재 창사의 특성을 살펴 본 연구다. 특히 광교조합과 다동조합의 비교를 통해 새로움을 요구하는 관객의 요구에 따라 춤이나 선율 및 창사의 일부를 변형했던 다동조합의 공연 특성을 규명하였다.

유석환의 「여성과 책: 여성 표제어 책들을 통해 본 식민지 책시장의 젠더 역학」은 식민지 책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구조화시킨 방식을 탐색한 연구다. 특히 여성 표제어가 제목으로 달린 책들을 대상으로 삼아 식민지 상황에서 여성과 책시장 및 문학의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근대 지식 문화의 젠더 양상을 새롭게 조망하였다는 점에서 일독할 만하다.

박현수의 「늦게 발행된 동인지—1920년대 전반기 문학 장과 『백조』—」는 프로문학의 문학적 온상으로 알려진 동인지 『백조』를 중심으로 1920년대 전반기 문학 장의 변화를 탐색한 연구다. 특히 『백조』의 변화과정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1920년대 『동아일보』, 『개벽』, 『동명』 등의 잡지가 '문예특집'을 마련하고 원고료를 지불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양상을 설명하였다. 또한 열악한 조건 속에 있었던 동인지 문학이 경제적인 이익을 부정하는 가운데 상징적 특권을 획득해서 문학 장에 편입하게 된 것을 서술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학 장의 변화가 『백조』 발행의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한편, 『백조』가 문학 장의 변화를 추동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규명하였다.

이아리의 「일제하 직업소개사업의 이원적 구조와 영리 소개업 통제의 한계」는 일제하 식민지 조선의 영리 소개업 통제의 문제점을 규명하는 연구로서, 영리 소개업 통제의 맥락에서 1940년 조선직업소개령이 지닌 의미를 검토하고서 당시 직업소개사업의 이원적 구조를 설명하였다. 특히 조선직업소개령이 영리 소개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법령이라는 한계로 인해, 일제 전시체제기의 조선이 소개업을 통한 사기나 인신매매의 온상이

된 양상을 세세하게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효과적인 식민 지배를 위해서 식민지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일제 식민 통치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영미의 「기독교 선교와 동요 번역—李一來의 『朝鮮童謠作曲集』을 중심으로—」는 조선인 이일래가 작사와 작곡을 하고 호주 선교사 부부가 삽화와 번역을 담당했던 그림동요곡집인 『조선동요가곡집(朝鮮童謠作曲集)』에 대한 연구로서, 참여자들의 역할과 『조선동요가곡집』의 특징을 꼼꼼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다른 가곡집과의 대상 독자층의 비교를 진행함으로써, 『조선동요가곡집』이 이후 다양한 형태의 가곡집 발간의 초석이 되었으며 조선의 동요곡집이 해외로 유포되는 계기를 마련했음을 논증하였다.

서홍석의 「한국전쟁기 조선인민군 내 로동당 단체의 설치와 귀결」은 한국전쟁 시기 인민군 안에 로동당 단체가 설치된 대내외적 요인과 과정을 검토하고 그 역사적 함의를 밝힌 연구다. 특히 인천상륙작전으로 급변하는 전세 가운데 인민군의 규율이 이완되자 통솔 체계의 붕괴 위험을 느낀 소련 및 북한지도부가 이러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인민군 내부에 로동당 단체를 설치하려 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로동당 단체 설치에 따라 당원 확대가 시도되고 당원이 된 군인들이 간부로서 양성되면서, 1952년의 행정구역 개편 이후에는 이들 제대 군인들이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음을 밝혔다. 이 논문은 1950년대 북한의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 이행과정에서 제대 군인들의 사회적 활동과 위상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김지영의 「육체적 사랑의 서사와 지배적 허구의 폭로—연애 담론으로 본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은 낭만적 사랑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던 1970년대에 육체를 동반한 연애의 질곡을 다룬 『별들의 고향』의 서사적 특징을 연애 담론을 통해 조망한 연구다. 논자는 특히 불평등한 성 역할의 위계 속에 혼외 성관계의 희생양이 된 여성을 통해 낭만적 사랑에 감추어진 '지배적 허구'의 위선을 폭로하고, 윤락가의 사랑이 지닌 천진함을 통해서 윤리적 역전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남성성에 대한 저항과 개발지상주의와 연관된 가족 이념의 위선을 조롱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남성들의 집단적 응시가

사적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개별자들의 차이를 녹여 버린 서사 전략에 따라 작품이 팔루스적 동일성으로 회귀하고 예속된 평형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비평적으로 규명하였다.

송소라의 「1980-2010년대 판소리 세계화의 전개 과정과 향후 과제 고찰」은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전개된 판소리 세계화의 과정을 살피고, 향후 판소리 세계화의 과제를 고찰하는 연구다. 기존에는 1990년대 후반 IMF 경제 위기부터 판소리 세계화 과정의 배경으로 연구하였으나, 필자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전통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촉발되었다는 점을 밝히는 한편, 1990년대 정부의 세계화 기조에 따른 다양한 활동과 더불어 200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새로운 양상까지 설명하였다. 향후 과제로서는 미디어를 통한 판소리 공연 기회의 확장과 판소리 콘텐츠의 다변화, 판소리 창자들의 창의적 기량이 발현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및 제도적 장치의 필요 등을 제안하였다.

이번 호의 해외한국학자료 소개로는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 『박해(博解)』에 대한 송양섭의 해제가 실렸다. 이 해제에서는 18세기 호조의 법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로는 유일한 자료로 알려져 온 『탁지지』를 보완할 만한 가치를 지닌 자료로서 『박해』의 저자와 집필 경위를 추정하고 구성과 내용을 살폈다. 또한 『탁지지』와 『박해』의 비교를 통해서 공물(貢物)과 군자(軍資), 균역(均役) 등 호조가 직접적으로 관할하지 않는 부분까지 모두 정리한 『탁지지』에 비해 『박해』가 호조를 중심으로 판적사, 경비사, 회계사 등의 영역별로 해당 속사가 담당하는 업무와 특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정조 16년(1792)까지 기록된 내용을 통해 정조 즉위 후 추진되었던 재정개혁의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번 호에 소개된 『박해』는 향후 호조의 조직과 운영을 고찰하고 관리들에게 시기별로 지급하는 각종 물품과 관청 운영을 위한 여러 제반 사항을 연구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문화연구』 편집위원회는 이번 호에 실린 논문들을 통해서 영역과 소재 면에서 갈수록 다양화되고 주제와 접근방법 면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한국학의 발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양상이 더욱 가속화하기를 희망하면서 많은 연구자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민족문화연구 편집위원회